2021.09.27. NO.684

JP베트남 뉴스레터

지금 베트남 기업들은… Dong Hai JSC of Ben Tre

Dong Hai JSC of Ben Tre (DHC)는 1994년 초기 자본금 800억 VND로 포장공장을 설립한 것을 모태로 하여 2003년 지금의 명칭을 갖게 되었다. 크라프트지(kraft), 카톤 페이퍼(상자 제조 종이) 등을 생산하는 포장지 회사로 2009년 호치민 상장거래소(HOSE)에 상장한 뒤 지금까지 꾸준히 자본금을 늘려왔으며, 올해 1분기에는 최초로 분기별 매출 1조 VND를 달성하는 등 무서운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는 기업이다. 현재 DHC는 메콩 델타 지역의 시장 점유율 70%를 차지하는 가장 큰 크라프트지 생산업체이며, Giao Long I, Giao Long II 등 3개의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주목할 만한 점은 베트남의 포장지 수요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사실이다. 베트남 펄프제지협회(VPPA)는 자국의 포장지 수요가 향후 5-10년간 14-18%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SSI증권 역시 2021-2025년 시장규모가 12%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이는 △ 공급이 자국수요의 70% 밖에 충족시키지 못하는 현 시장상황 △ 꾸준한 도시화 진행 및 전자상거래 확대에 따른 포장 수요 증가 △ FTA 체결 등으로 해외진출의 기회 확대 등에서 이유를 찾을 수 있다. 특히 DHC가 주력으로 하는 종이 포장지의 경우 전체 포장 산업 중에서 70%를 차지하며 식품포장 산업에서의 독보적인 선호도 및 환경문제 대두에 따른 기존 플라스틱 제품 대체 흐름 등 호재가 이어지고 있다. 이 같은 성장 잠재성을 확인한 한국을 포함한 태국, 일본 등 외국기업의 현지 기업 M&A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동원 시스템 기업은 현지의 Minh Viet 포장지 회사를 2186만 달러를 주고 인수한 바 있다. 아울러 의약품산업 등에서 고품질 포장재 수요가 증가하지만 현지 수요의 30% 정도밖에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로부터 기술 개발에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관련 시장을 개척해 나갈 필요도 있어 보인다. 출처: VNP(링크)

이커머스, 포장지 시장 성장 견인

이커머스 시장의 성장세가 종이포장지 시장 성장의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온라인화로 인쇄용지의 사용은 줄었지만 상품포장 수요는 급증하면서 전체 수요가 크게 증가한 것이다. 현재 베트남에서 생산되는 종이류 중 포장용지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사실은 이를 반증한다. 한편 산업무역부에 따르면 2025년까지 인구 절반이상이 온라인 쇼핑을 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잠재력 또한 무궁무진하다는 평가이다. 출처: KOTRA(링크)

DHC, 포브스 선정 아시아 200대 기업

DHC가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포브스(Forbes)가 선정한 연매출 최대 10억 달러 미만 아시아 200대 기업으로 선정되었다. 선정기준으로는 지난 1~3년간의 영업실적과 지난 1~5년간의 기업 경영·회계·근무환경·법적문제 등이 포함된다. 올해에는 코로나의 영향으로 의료· 제약 산업 분야 기업들이 강세를 보이는 와중에, 국가별로는 중국 37개, 일본 27개, 인도 26개, 한국 24개 기업 순이었고 동남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태국이 13개 기업으로 선두를 차지했다. 베트남의 경우 2개 기업이 선정되었는데, 종이 포장재 기업 Dong Hai JSC of Ben Tre (DHC) 와 부동산거래 기업 Khang Dien Housing Trading and Investment JSC (KDH)가 바로 그 주인공이다. 특히 DHC의 경우 200대 기업 중 관련 산업에서 선정된 유일한 기업이라는 점에서 더욱 주목할 필요가 있다. 출처: VietnamBiz(링크), AseanDailyNews(링크)

주요기사

동상이몽 부동산 시장, 고민하는 투자자들

부동산 시장이 각광받음에 따라 기존 투자자들 이외에 신규 투자자들 역시 새로 시장 진입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들은 주로 도시 주택, 공단, 리조트 분야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기관 투자자 위주로 여전히 코로나발(發) 경기침체 우려가 불식되지 않고 있는 반면, 부동산 소유자들은 향후 부동산 가격이 더 오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 실제 거래로 이어지기까지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때문에 주로 현지 상황을 보다 자세히 알고 있는 베트남 국내 투자자들 위주로 거래가 성사되고 있는 실정이다. 출처: VietnamBiz(링크)

커피 수출 산업 청신호

지난 2달간 베트남 커피 수출이 작년 동기대비 11%이상 증가하며 호조세를 보이고 있다. 주 고객층인 유럽, 미국의 수입물량이 늘어난 덕분인데, 이는 주로 베트남의 경쟁국이자 세계 최대 수출시장인 브라질이 이상기후 및 컨테이너 확보 실패 등으로 운송에 차질을 빚고 있고 때문이다. 반면 베트남의 경우 남부지역의 코로나 봉쇄 조치가 완화된 것도 수출에 긍정적이다. 현재 베트남 커피가격은 톤당 2,038 USD로 최근 4년간 최고치다.

출처: VietnamBiz(링크)

Vietnam Airlines 기사회생

국가자본투자공사(SCIC)는 지난 13일 6조 8949억 VND를 들여 국영 항공사 Vietnam Airlines 지분 31.08%를 인수했다고 발표했다. 국가자본관리위원회(국가자본에 전반에 대한 관리를 담당하기 위해 2018년 출범)가 산하 SCIC에 지분 인수를 명령한지 10개월만에 이루어진 것으로, 이로써 현재 완전자본잠식상태에서 상장폐지의 위기까지 몰렸던 Vietnam Airlines의 정부주도 구제금융은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아울러 '위드 코로나'로의 전환과 함께 항공업계 전반에 각종 항공편 운항재개 등 기대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구제금융의 조건 중 하나인 자체적인 구조조정 노력도 지속될 전망이다. 추가적으로 Vietcombank 역시 14일 신주인수권 행사를 통해 추가 증자분의 56.4%를 인수하기로 해 Vietnam Airlines의 숨통을 틔워줄 전망이다. 한편 지난해 3월말부터 시작된 국제선 정규편 운행중단은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으며, 최근 4개월간은 코로나 방역 조치로 국내선 운항도 타격을 받은 상황이다.

출처: VietnamBiz(링크), 인사이드비나(링크),

금융

SHB 은행 주식, 하노이증시 → 호치민증시 이전

현재 하노이증시(HNX)에 상장되어 있는 20억 주에 달하는 SHB 은행 주식이 호치민증시(HOSE)로 이전된다. SHB은행 관계자에 따르면 정확한 이전 시기는 아직 미정이나, 베트남 증권위원회(SSC)에 따르면 주식거래는 HNX에서 마지막으로 거래된 날로부터 3거래일 안에 HOSE에서 재개되어야 한다. 이 같은 흐름은 지난 7월 재정부가 공표한 시행령에 따라 HNX를 HOSE로 통합하는 증권거래소 재정비 로드맵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HNX 상장주식은 늦어도 2025년 6월 30일 이전에 전부 HOSE로 이전될 전망이다.

출처: 인사이드비나(링크), VietnamBiz(링크)

BAC A 은행, 코로나 위기 극복 대출 지원

BAC A 은행이 올해 12월 31일까지 코로나 위기 극복 지원행렬에 동참하기 위해 개인 대출 지원에 나선다. 대출 목적으로는 부동산·차량 구매, 산업생산시설 투자, 농업시설관리 등이 있으며, 연 6.49%의 이자율로 최장 18개월 만기다. 단기대출의 경우, 6개월까지로 상환을 연장해주었으며, 6개월 미만의 초단기대출의 경우 고정금리 7.69%의 연이율로 대출 가능하다. 기한 내 신청분은 내년 1월 31일까지 모두 지급이 완료될 예정이다.

출처: VIR(링크)

흥옌 성

2021년	최저임금(₫)
Region 1	4,420,000
Region 2	3,920,000
Region 3	3,430,000
Region 4	3,070,000

흥옌시 및 미하오·반럼·반지앙·옌미 현 Region 2
나머지 지역 Region 3

명칭: Hưng Yên
성도: 흥옌 성
교통: Hanoi Center에서 30km, Noi Bai 국제공항에서 50km, Hai Phong 항구에서 75km에 위치한 글로벌 물류의 중심지이자 하노이~하이퐁 고속도로 및 5A·38B·39A 국도 등 교통 접근성 우수
GRDP: 66억 USD (2015)
연간성장률: 7.6% (최근 5년 평균)/ 9.72% (2019)
흥옌성은 수도 하노이 북부로부터 약 30km 떨어져 있는 성으로 곡창지대인 홍강델타 지역의 주요 도시 가운데 하나이다. 인구는 125만 명, 면적은 930km2로 우수한 교통입지에 힘입어 현재 200여개 한국 기업이 진출해 있다. 우리나라의 대전광역시와 2018년부터 우호도시관계를 맺어오고 있으며, 2019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서 양국정상이 추진하기로 합의한 핵심 경제협력 사업의 중심지이다.
출처: 대전광역시(링크)

Thang Long II 공단

면적: 275ha
입지: Hanoi Center 33km/ Noi Bai 국제공항 48.4km/ Hai Phong 항구 63km/ Hanoi역 55km
전기: 110/22 KV
비용:
- 임대료: 90-95 USD/㎡ (관리비 1 USD/㎡/연)
- 전기료: Peak hours & Normal hours 모두 베트남 국영 전력회사(EVN)에 따름.
- 물 사용료: 0.56 USD/㎥/연
- 폐수 처리: 0.24 USD/㎥/연

출처: Kland(링크)

Pho Noi B 공단

면적: 120ha
입지: Hanoi 28km/ Noi Bai 국제공항 40km/ Hai Phong 항구 73km/ Cai Lan 항구 90km
전기: 110/22 KV
비용:
- 임대료: 70-75 USD/㎡ (관리비 0.5 USD/㎡/연)
- 전기료: Peak hours & Normal hours 모두 베트남 국영 전력회사(EVN)에 따름.
- 물 사용료: 0.45 USD/㎥/연
- 폐수 처리: 0.6 USD/㎥/연

출처: Kland(링크)

LH 한국토지주택공사

LH, 흥옌성 한국형 산단 입주기업 추가모집

출처: 한-베트남 경제협력 산업단지(링크)

LH가 오는 9월 30일까지 흥옌성에 위치한 한-베 경제협력산단에 입주할 우리 기업을 추가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그동안 일본, 중국 등 경쟁국이 선점한 산단개발시장에서의 돌파구를 찾고, 우리나라 개별기업들이 독자적으로 산업단지를 물색, 인허가 및 자금조달까지 수행해야했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준비되었다. LH는 지난 7일 현지 합작법인 VTK를 설립하였으며, 단순 시공사로서가 아닌 공공 디벨로퍼(developer)로서 역량 강화를 내세우며 편의시설 확보, 산업단지 관리, 입주지원, 자금조달컨설팅, 세제혜택 등 원스탑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조성사업은 총 2단계에 걸쳐 진행되며, 현재 추진되는 1단계 사업은 약 1.5km2 부지로 이달 중 토지보상, 건설절차를 수립하여 12월 조성공사 착수를 목표로 한다. 특히 지리적으로 근처에 삼성 등 국내 대기업 생산시설이 많이 진출해 있어 중소기업들의 시너지 창출에 큰 힘이 될 전망이다. 입주희망기업은 LH홈페이지 또는 한-베트남 경제협력 산업단지(http://www.kviphy.com)에서 먼저 입주의향서(LOI) 접수를 통해 분양안내 정보를 받을 수 있으며, 입주확약서(LOC) 제출을 통해 산업단지 용지 우선공급 혜택 신청이 가능하다.

출처: LH(링크), 한-베트남 경제협력 산업단지(링크), news1(링크)

베트남 진출 연대기

1966 년 우리나라 건설기업이 처음 베트남에 진출한 이후, 베트남은 현재 아시아지역 내 2 위, 세계 전체 5 위의 해외건설시장으로 발돋움했다. 때문에 금융위기 이후인 2010 년 전후로 KOICA,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등 발주처의 요청으로 시작된 다양한 형태의 현지 용역작업을 시작으로 최근에는 베트남 건설부, 각 지역의 성들과 공동개발, 연구협력 MOU 를 잇달아 체결하며 포화상태인 우리나라 건설시장의 대안으로 해외시장 진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 같은 흐름은 2017 년 신남방정책을 천명한 정부정책과 맞물리면서 2028 년까지 LH 사업비 15%를 해외사업에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주로 컨소시엄 형태로 우리나라 기업의 원활한 베트남 진출을 돕는 형태뿐만 아니라 지난 개발역량과 경험을 토대로 한국형 스마트시티(K-City), 산업단지 개발을 통해 '산업 한류'로의 도약을 이끌어내겠다는 목표다.

구체적으로는 2019 년 MOU 를 체결한 하노이·다낭 사회주택(무주택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 또는 임대하는 주택) 개발사업과 후에성 쩐마이랑코 경제구역 개발협력 등에서 착공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10 일에는 후에성과 스마트시티 협력 MOU 까지 체결하며 앞으로 스마트홈 인프라와 건설 기술을 보유한 국내기업의 베트남 시장 진출에도 청신호가 켜질 전망이다. 출처: 한국건설신문(링크)

본 뉴스레터의 내용에 관한 문의사항은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임동현/dhlim@jplawvn.com/+82 10 6796 8845

법무법인 제이피의 뉴스레터는 베트남 경제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저희 사무소의 법률 자문 또는 공식적 견해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본 뉴스레터의 수신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jplaw@jplaws.com으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